

광주 도심 난립 5·18 폼페 현수막 막을 방법 사라졌다

상위법 위반 지적에 광주시 옥외광고물 조례서 비방· 폼페 금지조항 삭제 정당현수막 이어 일반현수막도 규제 못해... 왜곡세력 대처 어려워 고심

광주 도심에 5·18민주화운동을 왜곡하고 폼페하는 현수막이 걸려도 제재할 방법이 없게 됐다. 광주시가 조례에 신설했던 '5·18 비방·폼페 금지' 조항을 삭제했고, 5·18왜곡처벌법도 사실상 사문화 돼 제 기능을 못하고 있어서다. 광주시는 지난 21일 '광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했다. 지난 8월 대법원 판결에 따라 정당현수막에 대한 5·18 비방·폼페 금지 조항을 삭제한 데 이어 최근 일반현수막에 대한 금지 조항마저 삭제하기로 한 것이다.

개정안은 기존 조례에 있던 제12조의 3 '정당 현수막에 대한 표시 방법'에서 5·18 비방·폼페 금지 내용을 전부 삭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추가로 지난 8월 공표한 입법예고에서 제12조 '현수막의 표

시방법'에 '누구든지 현수막 내용에 5·18민주화운동을 비방하거나 폼페하는 내용을 표시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을 신설하기로 했던 것도 삭제했다. 앞서 광주시는 지난해 12월 옥외광고물법 개정으로 정당 현수막을 행동동 당 2개 이하로 제한한 데 따라 시 조례 개정 작업에 돌입했다. 이 과정에서 '정당 현수막의 표시방법 등' 조항에 '5·18민주화운동을 비방하거나 폼페하는 내용을 표시하지 않아야 한다'는 조항을 추가했다. 보수정당 등에서 정당현수막을 이용해 잇따라 5·18을 왜곡·비방하자, 정치적 입장을 핑계로 5·18을 폼페하는 일을 막기 위해 조례를 만들었던 것이다.

실제로 최근 광주시와 5·18기념재단은 광주시 도심 일대에 북한군 개입설, 가짜유전자설 등의 내용을 담은 5·18 왜곡 현수막을 게시한 민경욱 전국

회의원(가거호호공명선거대안당 창당준비위원장)과 자유민주당 등을 잇따라 경찰에 고발했다. 이들이 내건 현수막은 지금도 광주시 광산구 무진대로, 서구 서창동, 북구 운암동 등지에 걸려 있다. 지난해 6월에는 광주시 동구 금남로 일대에 '5·18 유공자 명단 공개하고 가짜 유공자 공무원은 사직하라'는 등 내용의 현수막이 게시되기도 했다. 하지만 지난 7월 대법원이 "정당현수막은 상위법인 옥외광고물법 시행령에서 규격, 표시·설치 방법 등을 정하고 있으므로 광주시 조례로 제한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리면서 시 조례가 상위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광주시는 지난 8월 정당현수막에 대한 금지 조항을 삭제하기로 하고, 대신 궁여지책으로 일반현수막에 대해서라도 5·18 비방·폼페 내용을 담지 못하도록 별도의 조항을 신설하기로 했으나 이마저도 제동이 걸렸다.

광주시는 지난 4일 광주시 자문번호 3명으로부터 신설 조항 내용에 위법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받았다.

'상위법에서 시 조례로 금지·제한 권한을 위임한 바 없다'는 이유로 정당현수막을 제한할 수 없다면, 일반현수막에 대해서도 광주시가 내용을 제한할 권한이 없다는 것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옥외광고물법에서 현수막 내용을 제한하는 경우는 범죄행위를 정당화하거나 음란, 퇴폐, 인종차별 등 내용에 한정되고 있으며 5·18에 대한 내용은 없다"며 "5·18에 대한 비방·폼페를 담은 내용이라고 할지라도 시 조례로 제한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막는 것으로 보여진다"고 밝혔다.

결국 5·18을 왜곡·폼페하는 내용을 실은 현수막이 광주 곳곳에 내걸린 사례가 빈번했음에도, 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졌다.

일각에서는 5·18 비방·폼페 금지를 명문화했던 시 조례를 없애는 것은 5·18 왜곡·폼페 세력의 활동에 부추기는 꼴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더욱이 대안으로 제시되는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5·18왜곡처벌법)만으로는 난립하는 5·18 폼페 현수막을 근절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제

기되고 있다. 이 법은 5·18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금지 대상으로 신문, 잡지, 방송, 출판물 등으로 한정하고 있으며, 출판물에 현수막을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고소·고발 시 처벌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는 데다 지난 2021년 1월 시행된 이후 4년 동안 제대로 된 처벌 사례도 없다 보니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박강배 5·18기념재단 상임이사는 "그렇잖아도 5·18 왜곡 세력들이 매일같이 광주시 곳곳에 5·18 폼페 현수막을 설치하는 등 갈수록 심해지고 있어 일일이 대처하기 힘든 상황인데 답답한 일"이라며 "표현의 자유라는 것도 사회적 가치와 규범을 무너뜨리지 않는 범위 안에서 인정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한편 광주시는 다음 달 11일까지 조례 개정안에 대한 이의 신청을 받은 뒤, 법제심사를 거쳐 시의회 심의 안건으로 상정할 계획이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화정아이파크 철거작업 막바지 2년 전 붕괴 참사가 빚어진 광주시 서구 화정아이파크 철거 작업이 막바지에 접어든 가운데 23일 김이강 서구청장과 외부자문단들이 철거 공사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나명주기자mjna@kwangju.co.kr

'마세라티 뺑소니범' 음주운전 혐의 추가 구속기소

경찰이 '광주 외제차 뺑소니 사망 사고' 피의자인 고급외제차(마세라티) 운전자에게 음주운전 혐의를 추가로 재판에 넘겼다.

광주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김희주)는 23일 뺑소니 사고 당시 차량 운전자인 A(32)씨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인도피교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A씨의 도피를 도운 조력자 B(33)씨도 범인도피 혐의로 구속해 재판을 받게 됐다.

A씨는 지난달 24일 새벽 3시 10분께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하다가 광주시 서구 화정동 도로에서 오토바이를 추돌해 1명을 숨지게 하고 1명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사고를 낸 직후 차량을 버리고 지인 C씨의 벤츠 차량에 탑승해 함께 술을 마셨던 지인 D씨와 함께 대전으로 도주했다. 이후 인천공항, 서울 등지를 배회하다 범행 2일여만에 서울시 강남구에서 B씨와 함께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은 음주 채증(위드마크) 공식을 활용해 사고 당시 A씨의 음주 여부를 판독했으나, A씨가 단속기준(혈중알코올농도 0.03%)에 못 미치는 양의 술을 마시고 운전한 것으로 봤다. A씨가 음주운전 사실을 시인했음에도 불구하고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는 적용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하지만 경찰은 압수수색, 계좌 추적, 통신 분석, 영상분석 등 보완 수사를 통해 김씨가 마세라티 차량을 운전하기 전 3차례에 걸쳐 최소 소주 2병 이상을 마신 사실을 확인하고 A씨에게 면허취소 수준의 만취 운전 혐의도 추가해 기소했다.

경찰은 A씨의 한 차례 술자리를 확인했지만 검찰에서는 A씨가 이날 마신 총 3차례 술자리의 술의 양을 전부 합산했다는 것이다. 경찰은 3차례 술자리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한편 경찰은 A씨 도주를 도운 공범 C·D씨도 범인 도피 혐의로 추가로 불구속 송치했다.

/정병호 기자 jushb@kwangju.co.kr

'순천 묻지마 살인' 박대성 기소... 개인 분풀이 범행

순천 도심에서 '묻지마 범행'으로 10대 여성을 숨지게 한 박대성(30)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박씨의 범행을 개인 분풀이를 위한 '이상동기 범죄'(일명 묻지마 범죄)로 봤다. 광주지검 순천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김병철)는 23일 박씨를 살인 및 살인예비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박씨는 지난 26일 새벽 0시 40분께 순천시 한

병원 주차장에서 친구를 배웅하고 귀가하던 A(17)양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박씨가 범행 후 흉기를 소지한 채 1시간여 동안 술집과 노래방 등지를 배회하며 추가 범행 대상을 물색한 사실을 들어 살인예비 혐의로 적용했다. 애초 경찰은 살인혐의만을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범행동기를 경제적 궁핍, 가족과의 불

화, 소외감 등이 누적된 개인 불만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했다.

박씨의 휴대전화 등을 포렌식한 결과 범행직전 흉기를 촬영한 사진이 확인됐다는 점에서 우발적 살인은 아니라는 것이 검찰의 설명이다.

검찰은 전담수사팀을 꾸려 박씨에게 죄에 상응하는 중형이 선고되도록 주력할 방침이다.

한편 경찰은 특정 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박씨의 신상정보(얼굴, 나이, 성명)를 홈페이지에 30일간 공개했다.

/순천=김은중 기자 ejkim@kwangju.co.kr

한국시리즈 관계자 사칭·암표 거래 등 68건 적발

프로야구 KIA 타이거즈의 한국시리즈 경기가 시작됨에 따라 '암표(暗票)거래와 사기(9월 19일자 광주일보 6면)'가 극성을 피우자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3일 광주경찰청 등에 따르면 전날 기준 프로야구 한국시리즈 티켓과 관련한 불법 행위 68건을 단속하거나 적발할 수 있다.

조사결과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한 거래사기가 64건으로 가장 많았다. 대부분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실제 가격보다 웃돈을 주고 거래를 했음에도 돈을 받고 티켓을 양도받지 못해 피해를 입

은 시민들이 신고를 한 것이다.

1건은 '불법 출입'으로 60대 남성 A씨가 1차전이 열린 지난 21일 광주시 북구 챔피언스필드에서 다른 행사에 사용된 출입증·비표 등을 보여주며 관계자인 것처럼 속여 1인당 5만원을 받고 경기장에 들여보내다 현장에서 적발됐다.

현장 암표거래도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장 앞에서 3만5000원의 한국시리즈 입장권을 15만원에 판매한 혐의(경범죄 처벌법 위반)로 40대 B씨가 붙잡혔다. 사이버 범죄수사대는 티켓을 대량 구매·판매하는 행위 2건을 들여다보고 있다. /정병호 기자 jushb@

건물·주택 지붕공사, 스틸방수, 리모델링

건축시공, 설계, 견적, 리모델링, 상담문의



칼라강판 지붕공사



건물 리모델링



전원주택신축

공장신축



옥상스틸방수



주택(외, 내부) 리모델링



징크판넬시공

창호(샷시)교체